

울에 PVA 수용성 섬유를 혼방한 모직물

수용성 폴리비닐알코올(PVA) 섬유를 사용하여 품질을 보다 높은 모직물의 제조 기술이 개발되었다. 폴리비닐알코올은 포발이라고 부르는 고분자 화합물으로써 접착제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용액으로부터 만들어 진 것이 PVA섬유이다. 이때 개발된 고품질 울에는 물에 녹는 PVA섬유가 이용된다. 이러한 PVA 수용성 섬유를 울에 10~20% 혼방하여 먼저 직편물을 만든다. 그 후 정리(마무리)공정에서 PVA를 용해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든 것이 고품질의 울 100% 직물이다. PVA를 물에 녹여 제거하여 감량함에 의하여 소재가 가볍게 될 뿐만 아니라 내부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벌키성도 얻어지고 스트레치성이라던가 드레이프성도 우수한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수용성 PVA섬유는 울제품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임전용부(林田隆夫))

* 트로피컬룩(tropical look) : 열대 지방의 민속 의상에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이다. 하와이주, 사모아제도, 타히티섬 등의 남태평양제도, 카브리제도,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 아시아 등이 트로피컬 패션의 근원지이다. 남국을 생각나게 하는 밝고 대담하고 강렬한 색채(우유 색을 띠는 흰색, 베이지, 크림색, 장미색, 핑크, 겨자색, 빨간색 등)를 사용하여 디자인하거나 열대 지방의 특유한 식물의 잎이나 꽃무늬를 모티브로 디자인함으로써 이국적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소재는 트로피컬 라나(tropical lana)는 얇고 가볍고 깔깔한 촉감의 소모 직물을 주로 사용한다. 직조는 경사와 위사에 소모사를 사용하고 너무 치밀하게 되지 않도록 평직으로 짠다.

대표적인 트로피컬 의상으로는 알로하셔츠와 하와이의 무무드레스가 있으며 리조트 웨어로서 타이티섬의 여인들이 즐겨 입는 파레오(pareo) 드레스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입는 사롱스커트, 꽃무늬 플레어스커트, 여기에 여성스러운 티셔츠나 탱크 톱을 매치하기도 하며, 다리에 꼭 맞는 무릎 아래 길이의 삼바 팬츠(samba pants : 카브리 팬츠나 트로피컬 팬츠, 트리어도 팬츠라고도 한다) 등을 입는다. 삼바 팬츠는 카브리해, 서인도제도를 배경으로 하는 1950년대 풍의 칼립소 룩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서 1999년 봄에 다시 등장하였다.

트로피컬 룩은 1985년 봄에서 초여름에 걸친 영 패션에서 트로피컬 키치(tropical kitsch)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큰 주제가 되었다. 대표적인 트로피컬 디자인으로는 돌체와 가바나의 작품 등이 있다.